

한 영혼 위한 제자훈련에 주력하라

국제1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서 개최



국제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한 목회자들이 김승욱 목사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제제자훈련원

남가주사랑의교회와 국제제자훈련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 1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19일부터 현 이민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남가주사랑의교회의 현장분 석, 교회론, 소그룹 인도법, 제자 훈련과 성령충만 등 다양한 주제

로 진행됐으며 세미나를 위해 옥한흠 목사, 김승욱 목사, 김명호 목사, 김건우 목사, 강명욱 전도사 등 이른 바 제자훈련 전문가들이 강의했다. 옥한흠 목사는 영 상 강의 했다.

이 밖에도 남가주사랑의교회 선임 고석찬 목사, 글로벌선교

교회 김지성 목사, 이랜드 그룹 회장 박성수 장로가 강사로 참여 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영국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참석 이후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한 기상 상태 악화로 세미나에 불참했다.

20일에는 '제자훈련과 이민교

회'를 주제로 강의한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가 강의 했다. 김 목사는 “이민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중요하다”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바른 철학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목사는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위해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욱 목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헌신된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며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진정한 제자들을 훈련하는 목회자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지재일 기자〉

美 '국가기도의 날' 위헌 논란

미국에서 60여년간 시행되어 온 '국가 기도 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주말 위스콘신 주 지방 법원의 바바라 크랩 판사는, “국가 기도 의 날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 국교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가 기도 의 날은 특정 종교 행위를 '확인'하는 것을 넘

국가 기도 의 날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2008년 10월, 미국의 한 무신론 단체인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 이 날의 폐지를 주장하며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다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 짐 도일 위스콘신 주지사, 셸리 돕슨 국가 기도 의 날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측 변호인단과 미국 기독교 법률회사 '얼라이언스디펜스재단'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판결 불구 올해도 행사 엄수 예정

어서서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 의한 종교적 표현은 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위안이 되는 것이겠지만, 같은 신앙을 나누지 않는 이들에게는 차별적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어 국가 기도 의 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손현정 기자〉

美 복음주의 지도자들, “북한과 직접 대화” 촉구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오바마 정부에 핵안보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 북한과 같은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각료 앞으로 전달한 성명을 통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미국은 현재 이란, 북한과 직

이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논란을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하나 님께서 창조한 세계에 닥칠 끔찍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 감축을 위한 노력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현정 기자〉

리처드 마우 총장 등 300명 지도자들 지지 표명

국가들과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미 정부가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 응답으로, 미국 내 핵감축을 위한 복음주의자들(Evangelicals for Nuclear Reduction)은 오바마 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외화와 정부

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분이셨다. 결코 적과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며 “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부부가 2009년 취임식 공식 일정으로 열린 국가 기도회에서 기도드리는 모습. © 워싱턴 국립 대성당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던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www.irvinedc.com

디사이플교회 탄생 1주년 감사부흥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디사이플교회가 탄생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갖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 |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
- | 일시: 5월 1일 (토) 오후 7시
5월 2일 (주) 오전 9시, 11시
- | 장소: 디사이플교회 본당

17502 Daimler Street
Irvine CA 92614
Tel. 949.502.4923
www.irvinedc.com

디사이플교회
Disciple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고현종

트위터 스마트폰 시대, 교회는 지금

다양한 콘텐츠 필요... “한 사람” 소중

‘모맹’이라는 유행어를 흑시 알고 있는가. 모바일 인터넷의 대중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다. 일명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와 함께 거론되는 ‘웹3.0’시대라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돌풍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젠 기업 CEO들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친구들과 혹은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한다.

인터넷 환경은 웹1.0과 웹2.0시대를 넘어 웹3.0시대를 맞이하며 급변하고 있다. 활판인쇄술로 만들어진 구텐베르크 성경이 종교 개혁을 앞당긴 것처럼,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은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달라지는 인터넷 환경, 미디어 변화에 주목

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 언제 어디서나 소통한다, ‘웹3.0’ 시대

웹3.0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간단히 정의하면 실시간(Real-time), 시맨틱웹(Semantics), 모바일 등을 키워드로 들 수 있다.

웹1.0은 인터넷에서 문자, 영상, 음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신기술이었다면, 웹2.0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싸이월드나 마이스페이스 등과 같이 참여·공유·개방을 강조하는 웹 트렌드였다. 웹3.0은 웹2.0에 비해 매우 지능적이며 유비쿼터스적이다. 웹3.0은 컴퓨터가 이용자의 패턴을 읽어내 사용자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인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같은 웹3.0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웹브라우저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OS)를 내장해 MP3 재생, 이메일 송수신, 문서프로그램 가동,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전송, 업로드 등 멀티미디어 기능까지 감당한다.

게다가 응용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어플)을 직접 선택하고 설치해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게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아이폰은 현재 18만여개 이상 어플이 담긴 앱스토어(어플리케이션 스토어의 준말)를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스마트폰을 한번



언제 어디서나 개인용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 똑똑한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애플사 홈페이지

써본 사용자들은 일반적인 휴대전화는 눈에 차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는 140자 이하의 글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 웹 3.0 시대, 교회는 지금...

전문가들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양식, 문화 등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젊은 세대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진구 교수(한국 고신대 컴퓨터영상학과)는 “이동하면서 모든 미디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모으고 교육하고 선교하던 전통적인 방식에 변화가 오고,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패턴에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며 교회가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앱스토어에 올려진 기독교 관련 콘텐츠는 성경과 찬송가, 라이브워십과 같은 CCM이나 약보곡, MR 등이며 유료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미경 기자)

▶ 인도네시아 기독교, “종교 혁명” 일으키며 부상 중



인도네시아 기독교의 급격한 성장을 다룬 타임지의 보도. ©타임지 홈페이지

심심찮게 기독교 탄압 소식이 들려오던 인도네시아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미국 시사 주간 타임지는 무슬림 인구가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기독교가 급격한 성장세에 있다고 최신호(4월 26일자)에서 보도했다.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알라”는 “하나님”을 뜻한다.

집회 장소는 지난 7월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호텔 폭탄 테러 사건에 연루된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군에 의해 사살된 곳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미국 바일벨트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다. 몇 년 사이 새롭게 지어진 대형교회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호텔이나 상점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도 흔하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

타임지는 이같은 변화를 “종교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교인 수는 계속 증가’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의 확산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만은 아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붐’을 “원치 않는 서구

하나님 알라 외치는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부흥

인도네시아 중부 테망공의 한 광장에서 수백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알라”를 외치며 찬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모인 이들은 무슬림들이 아니다. 이곳에서 오순절주의 집회를 벌이고

이다. 아직까지도 인도네시아라고 하면 무슬림들이 지배적인 나라,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공개적인 기독교 야외 집회가 열릴 정도로 최근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에서는 주일예배가 주말의 중요한 일로 자리잡아 가고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상도 동부 도시인 마나도에 세워져 있다. 인도네시아 케이블 TV는 24시간 기독교 방송을 내보낸다.

문화의 영향”이라며 반기독교 정서를 선동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무슬림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때로는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도 뒤따른다. (손현정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학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IRVINE Office	SEOUL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창립 22주년 남가주사랑의교회 새로운 부흥 기대해

“우리의 속사함을 강건케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옵소서.”

지 앞에 무릎 꿇고(본문: 에베소서 3장 14~21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 기도했던 바울처럼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남가주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권면했다. 김 목사는 “본문의 기도는 우리

연합을 통한 새로운 부흥을 꾀하고 있다. 김승욱 목사는 이 같은 비전을 소개하고 “21세기의 요셉, 에스더, 다니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한다”며 “교회탄생 22주년을 맞아 부모 세대와 교사들이 함께 부흥을 꿈



남가주사랑의교회 김승욱 목사

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현재 900여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며 이번 학생회 연합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 양육프로그램으로 개편, 더욱 힘 있고 다이나믹한 예배로의 재탄생, 선후배 간의 좋은 롤 모델을 통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 주고자 한다. 김승욱 목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며 “예전에 비해 더 많은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를 위해 더 큰일을 꿈꾸고 해 낼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미 기자>

중고등부 연합사역... ‘하나님 나라 위해 큰 일 할 것’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사랑의교회(담임 김승욱 목사)의 기도문이다. 지난 18일 창립기념예배를 드린 남가주사랑의교회는 22주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김승욱 목사는 “이러므로 아버

의 기도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며 “22년 전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부흥을 넘어 열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기대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특별히 중·고등부

세계 환경오염 심각성 알리는 환경 지킴이들

겨울학기 프로젝트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남가주 라크레스턴(La Crescenta) 소재 뉴호프 아카데미 12명의 파바 소속 유엔 글로벌 디베이트 프로젝트팀이 지난 6일 오전 엘에이시 홀에서 시의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환경 에너지부에 있는 로멜 파스컬, 데이비드 제이, 리바티티 등 의원들은 현재 LA 환경의 상황과 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변화 상황을 전하며 유엔 글로벌 디베이트 프로젝트팀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보호 운동의 이유도 모른 채 사회의 트렌드와 대세를 따라 재활용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재일 기자>



남가주한인교회연합 부활절 합창제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

남가주한인교회연합 부활절 합창제 성황리 개최

남가주한인목회사회(회장 이정현 목사)주최 제1회 남가주한인교회연합 부활절합창제가 지난 18일 오후 6시 벨리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재연 목사)에서 개최됐다. 개최 메시지를 전한 이정현 목사는 “본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부활절합창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사건사고들로 우울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성도들이 찬양의 능력으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특별히 각 교회마다

부활절에 준비했던 귀한 찬양들을 자체 교회에서만 연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찬양한다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여 부활절합창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활절합창제는 앞으로 매년 4월 정기적인 행사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출연한 교회는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지휘 송규식 목사), 빛과소금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지휘 최순식 목사), 벨리장로교회(담임 변영익 목사, 윤삼건집사), 월서연합

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지휘 김미선), 세계비전교회(담임 김재연 목사, 지휘 권상욱 전도사),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 지휘 김성철),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 지휘 장상근) 등 7개의 교회찬양대와 벨리한인여성 매스터코랄(단장 김광숙 권사, 지휘 이귀인 권사), L남성선교합창단(단장 유창호 장로, 지휘 원영진 집사) 2개의 합창단이었다. 각 팀은 제 각기 독특한 음색과 다양한 스타일로 아름답고 훌륭한 합창제를 장식했다. <지재일 기자>

미주연회, 열방을 품은 차세대 부흥에 주력

[인터뷰] 미주연회 초대 감독 한기형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는 정연회로 승격된 후 2008년 9월 초대 감독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나성동산교회 담임 한기형 목사가 감독으로 선출됐다. 한 감독은 그간 미주연회 개척자로 목회자 연합, 개척교회 목회자 지원, 차세대 부흥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음은 한 감독과의 미주연회 사역에 대해 나누는 인터뷰 내용이다. -미주연회 초대 감독으로서 일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나?


러나 이제는 나와 가까운 연회로 인식하게 된 것이 차이점이다. -미주연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교단이 하며 미주에서는 미주연회가 한다. 한국에서는 리더십 훈련 등을 하지만 미주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주연회는 목회자들을 위해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또한 연회는 연회차원에서 선교에 주력해야 한다. 선교란 복음을 아는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현재 연회는 ‘열방을 품고 가는 비전’으로 1세와 2세 자녀 세대, 그리고 다민족의 부흥을 위해 멕시코 등의 나라



미주연회 초대 감독 한기형 목사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미주연회도 피해갈 수 없었으며 개척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했다. 감독 임기 중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행정적인 미흡함과 목회자간의 연합 부족으로 인한 협력사업의 추진 부족 등이다. 연합을 위해 연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목회자와 만남도 가졌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연대감 형성에 노력했다. -미주연회가 정연회로 승격된 후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연회는 정연회로 승격되기 전까지 한국 교단의 관리 감독하에 있었다. 그래서 미주 상황을 잘 모르는 교단에서 연회 일을 처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미주 목회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 보다 쉽게 연회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정연회로 승격된 후 목회자들이 연회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소속감도 더욱 분명해졌다. 정연회로 되기 전까지 목회자들에게 연회는 한국의 한 연회 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

에 10여개의 교회를 세웠고 현재 현지에 목회자 양성을 하고 있다. -목회자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러한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연회가 무임목회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개척 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연회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교회 개척 및 선교 사역에 힘쓰는 동역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결을마를 시작하는 연회를 위해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모텔’이 되는 연회를 만들어 갔으면 한 회 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 <이태근 기자>



HAPPYDAY CONFERENCE 2010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폭발적인 부흥의 결과를 가져오는 8주간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한국에서 2,300개 교회의 적용을 통해 **평균 40% 이상의 출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제1차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500명을 선착순으로 등록 받습니다.

※ 2009년 가을 해피데이 전도를 통한 새신자 등록 현황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교회(담임목사)	출석교인	해피데이 새신자 등록
순천성광교회(김동운목사)	1100명	600명	대구원대교회(김우혁목사)	330명	130명	하나인교회(이태영목사)	450명	200명
제자들교회(김경희목사)	120명	85명	대구선교회(정성은목사)	50명	133명	산정현교회(김형권목사)	200명	100명
부천벨교회(오정호목사)	50명	52명	예향침례교회(이기명목사)	140명	79명	주님의교회(전영미목사)	18명	29명
부평교회(최원국목사)	200명	115명	부천빛교회(오길용목사)	100명	80명	순복음열방교회(최동열목사)	50명	70명

더 늦기 전에 해피데이 전도를 준비하십시오.
해피데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와 교회 부흥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서두르세요!

강사: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 담임,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일시: 2010년 6월7일(월) 오후1시~9일(수) 오후5시까지
장소: 나성한인교회(담임 김영진 목사, 교회주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대상: 담임목사 및 성도(1교회 2명 이상, 담임 목회자는 필히 참석)
등록: 1인 \$250(4월15일까지), 1인 \$270(4월16일~5월5일까지), 1인 \$300(5월6일부터)
교재, 중식 및 간식제공, 숙박 별도

환불규정: 5일전까지 10% 차감, 하루 전까지 20% 차감, 당일부터 30% 행정수수료 차감
등록방법: **둘로스교회 홈페이지(www.douloschurch.com)** 게시판에 신청 후 체크를 보내고 전화 주세요.
Pay to the order of : Doulos Community Church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문의: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미주 컨퍼런스 담당자 둘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전화 310. 951. 3153 팩스 310. 214. 1150 이메일 jlsbc@hanmail.net
※ 선착순 등록이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유사품으로 바꾸려 해선 안돼”

■ 레너드 스위트, 통 컨퍼런스서 ‘그리스도인 선언’ ■

강연 중인 레너드 스위트 박사 © 김진영 기자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됐다. 예수 교회에 예수가 없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그룹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한다. 교회가 비즈니스 전문가를 초청한다. 성경과 예수,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드루 신학대 석좌교수) 박사가 한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는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시작된 ‘통 매니페스토(Tong Manifesto) 컨퍼런스’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비판의식을 더욱 분명히 했다.

4천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스위트 박사는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가 전하는 진리가 있다. 기

독교 역시 종교 가운데 하나이며 진리가 있다”며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곧 예수 그 자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스위트 박사의 강연 제목은 ‘21세기 교회를 위한 예수 선언(Jesus Manifesto)’. 지금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예수이며, 그분의 삶 자체임을 스위트 박사는 일관되게 역설했다.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구호와 원칙, 원리를 제시하지만 예수를 전하고 그의 삶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를 그들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시종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

신이 미리 준비한 ‘그리스도인 선언’을 낭독하게 했다. 이 선언문에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방법, 전략, 기념, 원칙, 교리, 프로그램, 유행, 유사품으로 바꿔 놓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었다.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스위트 박사의 신념이 담겨있다.

또한 여기에는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예수와 분리될 수 없다. 갈릴리 해변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에 임하신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지 않는다. 언제나, 그리고 언제나 지나 ‘예수님이 나를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를 묻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석자

들은 “우리의 열정과 사명, 그리고 생명조차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서약한다”고 선언했다.

‘21세기 교회를 위한 성경 선언(Bible Manifesto)’을 제목으로 스위트 박사를 이어 강단에 오른 조병호 박사(국제성경통독원 원장)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으로 돌아갈 때,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되찾게 된다”며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으로 ‘통(通)’의 방법론’을 역설했다.

그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복음서, 신약성경, 나아가 성

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며 “성경 66권 전체가 한 권으로서 완결성을 지닌다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부

본이 아닌 전체로 읽어내려가야 한다.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의 ‘통(通)’으로 보려는 노력은 신구약 성경 66권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있게 인식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시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서구의 정경적·언어

분석적 성경읽기와 동양의 정경적·심정적 성경읽기를 통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윗 박사는 “조 박 ‘통의 방법론’은 세계교회에 소개할 만한 성경 읽기의 방법론이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으며 성경적 생각을 기반으로 동서양의 동반자 관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통의 방법론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동서양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송과나무 통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장로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다.

〈김진영 기자〉

에든버러대회 100주년 기념 세계개혁주의협의회 총회



세계개혁주의협의회 제3차 개회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는 오정현 목사. © 사랑의교회 제공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1백 주년을 기념하는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제3차 총회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대학교에서 4 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막했다. 세계 48개국에서 200여 명의 목회자 및 신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 한국에서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김인환 박사(총신대 전 총장),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김진섭 박사(백석대 대학원 신학 부총장)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방안’ ‘21 세기를 향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 신학 만들기’ ‘21세기 교회로

의 문화적 도전’ ‘가난의 문제점과 사회적 정의의 성경적 응답’ ‘선교적 신학교육’ 등의 주제들이 다뤄졌으며, 분과별 워크숍에선 ‘새로운 영성’ ‘오순절 교회’ ‘이슬람의 도전’ ‘로마 가톨릭의 도전’ ‘다원화 사회에서의 교회’ ‘교회와 사회 이슈’ ‘이민 교회’ ‘숨겨진 성도들’

‘음악 속의 주님 찬양’ 등의 주제를 놓고 신학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국내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

정현 목사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 복음이 이제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들어가 유럽을 비롯해 이스

라엘까지 복음화하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음을 느꼈다”고 했고 김진섭 박사는 “세계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종윤 목사, 김인환 박사 등 참석... 오정현 목사 개회설교

막중한 책임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번 총회 개회설교는 오정현 목사가 맡았다. 오 목사는 ‘21세기 교회를 위한 성경적 산 소망’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설교에서 “에든버러 세계선교사대회 후 1백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1백년 전과 다름 없다”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문 제들이 난무한다. 비록 이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

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또 “세상적 소망은 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지만, 주님의 약속은 ‘산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 소망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소망”이라며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됨을 선포하고 현재의 삶에서 그의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회가 열린 에든버러는 지난 1910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세계선교사 1200여명이 모여 세계선교를 논의한 역사적 장소다. ‘이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주제로 세계 선교사역에서의 연합과 일치에 의했다. 한국에서는 마펫(S. A. Moffet), 에비슨(O. R. Avison), 게이(James S. Gale), 언더우드(H. G. Underwood) 등 외국선교사 14명과 윤치호 등 한국인 15명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특별협찬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특별후원 기독일보 아시아나항공

❖ 총 4회 출발 : 4월 1일(4월 3일 검진), 4월 15일(4월 17일 검진), 5월 6일(5월 8일 검진), 5월 27일(5월 29일 검진)
(고객이 원하시면 미리 출발하셔서 검진일에 합류 가능. 검진 결과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날짜 자유롭게 선택 가능)

역시 효자다!

서울아산병원의 건강검진이 역시 효자노릇을 했습니다.

30년 이민생활에 자식 키우느라 이제껏 여행 한 번 못가보신 우리 부모님, 지금도 우리를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 국내 최고 아산병원과 미국내 1등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껏 한 번 못다한 효자노릇 하겠습니까.

기독일보 - 안심 프로그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울아산병원 안심프로그램

정밀검사: 흉부X선(전후, 측면), 종양표지자(간암, 대장암, 담도암), 심전도, 복부초음파, 혈액정밀검사

공통검사: [공통] 위내시경(수면), 대장내시경(수면), 흉부CT, 복부골반CT, 뇌MRA, [남] 중앙표지자(전립선암), 전립선초음파, 심장운동부하, 심장초음파, [여] 중앙표지자(난소암), 유방X선, 액상자궁경부암, 골반초음파 or 유방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 흉추요추X선

남/여 \$3499

특별 혜택

기독일보 고객께만 주어지는 특별 혜택

1. 기독일보 고객만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프로그램(머리부터 발끝까지-안심프로그램)
2. 검진 다음날 서울 시내에서 무료 제공

미주교민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혜택

1.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검진 결과를 검진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음
2. 이상소견 발생시 2~3일내로 전문의와의 면담이 주선됩니다(통상 1~3개월 소요)

모두 포함! 항공료+호텔(3박)+식사+공항 픽업 및 교통서비스+서울시내투어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아주관광 www.usajutour.com

대표전화 (213)388-4000 •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죽” 미주 최초 LA 아주관광

관광진흥 대통령상 수상

백민들 대통령상 수상

서울아산병원

아산병원 LA센터: 213-387-9090

안선 의술 러 글 사랑

❖아주항공부: (213) 387.9090 ❖동부(로렌하이츠, 리버사이드): (800) 956-3939 ❖토렌스(310) 217-0770 ❖샌디에고(800) 994-1233 ❖북경: 8610-6439-2397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한국교회의 위기 말하는 이때, 가을별(秋陽)이 그림다

“나는 솔직히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 가족을 대할 때 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는 것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고(故)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1902-2000)가 1981년 육성 테이

도들은 이날 예배 중 스크린에 비친 ‘한경직 목사님은 과거가 아닙니다. 미래입니다’라는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다.
올해 백세인 방지일 목사(영등포교회 원로)가 ‘긍정으로 사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니, 설교라기 보다 울림에 가까웠다. 5분 남짓 전한 메시지. 그러

고, 서울여자대학교, 대광 중·고등학교 등을 설립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길렀다. 구호단체인 월드비전과 홀트양자회 등을 통해서 이웃들을 돌아봤고, 군대에 교회를 설립하고 군복무사를 파송해 군복음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많은 상을 안겼다. 1992년 종교계의 노

故 한경직 목사 10주기 추모예배

프를 통해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다. 소천한지 어느덧 10년. 그를 잊지 못한 사람들이 18일 오후 5시 서울 저동 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그는 여전히 가슴에 살아있었다. 교세는 약해지고,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물량주의화된 교회를 질타하는 원로들도 많다.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를 찾았다.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한 성도는 “웃고 계신 사진을 보니 왠지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난다. 한 없이 편안한 웃음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하기도 한다”고 했다. 성

나 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한경직 목사와의 추억으로 짙었고 그는 설교보다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땅을 보시지 않고 하늘을 올려 보면서 ‘예’라고만 했습니다. 그와 많은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분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성도들은 입과 귀를 닫고 대신 가슴을 열어 그의 울림을 받아들였다.
한 목사는 생전 많은 일들을 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폐허가 된 민족과 교회의 재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지금의 숭실대학

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았고, 1970년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98년엔 건국공로장을 수상했다. 하지만 2000년 4월 19일 그가 주님께로 갔던 날, 남겨진 것이라면 황제와 지팡이, 겨울 털모자, 그리고 즐겨쓰던 반팔 셔츠 안경 등이 전부였다. 상은 화려했으나 삶은 초라했고, 삶은 초라했으나 영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사람.....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로 자라 이날 영락교회를 찾았다. 숭실대학교 김대근 총장,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 이학수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김총장은 “인재 양성을 바라시는 목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한경직 목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 김진영 기자

사님의 바람이 초석이 돼 지금의 숭실대학교가 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그분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 했고 박 회장은 “전세계 60억 명의 인구 중 약 10억 명이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그 10억 명 중 1억 명을 월드비전이 돕고 있다. 목사님의 선견지명에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이 목사는 “군대 교회 중 40%를 목사님과 영락교회에서 지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말로는

더 설명할 수 없겠다”고만 했다. 예배가 끝났다. 성도들이 다시 발길을 돌린다. 집으로, 일터로,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디 한경직 목사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언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열심은 있으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이며 관리

자는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워야 한다. ...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와 지혜와 덕을 배워 그리스도의 최고 인격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바라며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돕고, 좋은 사업을 하고 또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한다.”(가족에게 남긴 유언 중)
다행히 돌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다. <김진영 기자>

예장 통합, ‘마리아 월경잉태설’ 연구위서 조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지용수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돈 목사)는 지난 9일 이단위 모임을 갖고, 이단위 서기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관련 ‘마리아의 월경 잉태설’에 대한 분명한 흑백을 가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최삼경 목사
9일 이단사이비 대책위 모임서 결의

지난 9일 백주년기념관 지하에서 가진 이단위 모임에서는 그동안 최 목사가 주장해온 월경 잉태설에 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 최 목사의 참석이 불가함을 밝히고, 최 목사의 퇴장을 권유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총회법을 들어 참석을 고집했다. 이 과정에서 최 목사와 이단위원들간 언쟁이 있었다.
결국 최 목사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후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신학적인 기준이 모호한 것이 문제이기에 이 문제도 함께 신학교수들이 중심이 된 이단위내 연구위원회에서 조사해 이단성 여부를 판별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서울북교회 노회장 심영식 장로(태릉교회)는 총회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최 목사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월경이 없었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면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수가 끊어진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잉태한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신학이단사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소위 최삼경목사의 월경잉태설’에 대해 총회의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이단위 모임에서 결의된 연구위원회 조사 결과

가 주목된다. 관심을 끌었던 최 목사의 이단위 서기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작년 말 통합측 감사위원회는 최 목사의 이단위 서기직에 대해 ‘3년조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위원회 규칙을 어기고 최삼경 목사가 이단위 서기가 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 목사의 서기직 사퇴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아직 다루지 않아 이날 안건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아시아교회 박철수 목사의 이단여부와 관련된 최 목사의 주장대로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구위원회에 연구하기로 내렸다. 한편 이단위는 영남지역은 29일 구미시민교회, 중부지역은 5월 11일 서대전중앙교회에서 각각 이단 세미나를 가질 계획이다. <교회연합신문>

이어령 박사 딸 민아씨, 지난해 4월 목사안수 받아

오는 6월 한국 방문 예정... '청소년사역' 비전

최근 <지성에서 영성으로>(열림원)를 출간한 이어령 박사(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딸 민아 씨가 지난해 4월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성조선 4월호 인터뷰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실을 밝힌 민아 씨는 무신론자였던 이 박사가 세례를 받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세 차례 암과 실명의 위기를 극

복하고, 자폐증 아들이 회복되는 등 시련과 고난을 겪은 민아 씨를 보며 이 박사가 마음문을 열게 된 것.
이 박사는 요양차 하와이에 거주하던 딸을 방문했을 당시, 한 교회에서 “만약 민아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짧은 기도를 드리며 기독교에 귀의를 결심했다.
이 박사의 기도 덕분인지, 민아 씨의 병은 흔적도 없이 나았고 이후 2007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이 전 장관은 세례를 받았다. 민아씨는 6월에 한국을 방문해 자신의 신앙체험을 담은 책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주택 차압/퇴거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al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4월 26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2009년 제4차 성광세계선교대회 개최예배에서 만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장면.

캄보디아를 비롯한 대륙별 8개국 14명 참석

제5차 성광세계선교대회 열린다

위싱턴성광교회(담임 임응우 목사)가 창립 9주년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5차 성광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금년으로 5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캄보디아를 비롯하여 8개국에서 14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가 초청됐다. 매년 창립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선교대회는 모든 행사를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 또한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대회는 21일(수) 오후 7시30분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매일 새벽집회와 저녁집회시 선교사들의 선교보고 및 간증으로 진행된다. 개최예배에서는 성광글로벌여성중장단(단장 유세진 안수집사)의 특송이 있으며, 매 저녁 집회시마다 장로성가단(단장 설연우 장로), 뎀시바 위십대스팀(단장 오정숙 집사), 할렐루야태권도선교회(회장 임

종길목사)의 태권도 공연 등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을 펼쳐진다.

선교대회 둘째날인 22일(목)에는 선교전략가인 백신종 선교사의 '대위임령(마28:19-20)의 재번역과 제자훈련 선교전략', 이상훈 선교사의 'NGO선교의 한계와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의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곡은식 장로는 "우리교회는 선교사님들과 관련 선교단체, 또 하나의 주요 선교단체인 목장, 목원간의 긴밀한 교류와 헌신을 통해 선교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선교대회니 만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싱턴성광교회에서 2007년 도미니카공화국에 파송되었다

가 이번 선교대회시 아이티로 재파송 받는 이철희선교사는 "그 동안 서신으로만 교제하던 목사님들과 성광교회 성도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도미니카에서의 활동과 아이티지진현장에서의 긴급구호활동과 앞으로 아이티에서 펼치게 될 사역비전의 선교보고를 할 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실로암목장, 성광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기회가 선교사와 목장, 교회가 더욱 긴밀한 관계속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임응우 목사는 "금년까지는 적은 수의 선교사를 초청하지만, 창립 10주년이 되는 다음해에는 파송선교사와 협력선교사 모두를 초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교회가 주최하는 명실상부한 최대규모의 선교축제 마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며 "2011년까지 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고, 300명의 선교사와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므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라고 선교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창립9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대회 폐막식에는 이종호, 이미선 선교사를 아프리카 수단으로, 정지웅, 조은영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그리고 이상훈, 이승희 선교사를 르완다로 파송한다. 한편 자국민 선교사로는 알메헤아선교사(필리핀), 마리아, 엘레나선교사(루마니아), 엔케이 다블르(인도), 다니엘 찰리바 부부(모잠비크) 등 총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앞으로 성광교회는 지속적으로 자국민 선교사를 파송해, 자국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교사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조요한 기자)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장에 이성철 목사 당선

KUMC전국총회가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뉴저지연합감리교회(담임 나구용 목사)에서 개최됐다.

14일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와 함께 총회기관보고, 연대기관보고가 이어졌으며, 은퇴 목회자 찬하식 및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총회 참가자들은 KUMC는 지난해 심방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모를 잃은 정남성 목사를 위해 기도했다. 이재준, 이덕균, 나구용 목사의 소감을 듣고 여행기발을 선물했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장에는 이성철 목사가 당선됐다.

연합감리교 한인총회는 14일 총회를 갖고, 투표는 후보 공천부터 선거까지 현장에서 진행됐다. 후보로는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승우 목사(위싱턴감리교회 담임), 한상신 목사(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담임)가 공천됐다.

이승우 목사는 사임 의사를 밝혀 이성철 목사, 한상신 목사의 양대 구조가 됐으나 투표는 세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는 3차까지 이어졌다. 이성철, 한상신 두 후보를 대상으로 계속된 3차 투표에서 이 목사가 82표, 한 목사가 61표를 획득해 총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회기 총회장 직을 맡았던 김정호 목사는 "지도력과 영력 모두를 갖춘 이성철 목사가 회장이 되어 감사하다"며 "한인 총회가 1천 교회 개척을 위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전국 한인 교회에서 인정받은 분이 당선되어서 앞으로 감리교회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철 목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갑작스럽고 여러 목사님들께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늘, 다시 교회를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나구용 목사)에서 열린 2010 정기총회는 15일 오전 주재강연과 폐회예배 후 마쳤다.

(윤주이 기자)



이성철 목사(좌), 김정호 목사(우)



SBC 북미선교부 방문 ©신평식 목사

본국 합동총회 실무진, 미국교회 성장원칙 '인상적'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서정배 목사) 국, 차장단 임원 6명이 지난 주 애틀랜타를 방

사무국 공부실장 신평식 목사, 출판국장 천석봉 목사, 사무총장 우중철 장로 등으로 구성된 1진 연수진

로 PCA 본부를 방문했던 연수단은 이번 방문에서 교단 행정조직과 운영, 총회발전 방향을 살폈으며 정치

지난주 애틀랜타 방문, PCA 총회, SBC 북미선교부 방문

문했다. 이들은 교단의 산하 교회를 책임 있게 리드하고, 세계적 비전을 갖고 일하고자 이번 연수를 계획하고 방문했다.

은 애틀랜타에서 남침례회북미선교부, PCA 본부, 프리미러처치 등을 탐방했다.

남부노회장 조영팔 목사의 인도

적 혼란과 신학적 노선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구축한 행정, 정치 시스템 활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 "선교사 지망생은 PCA 해외선교부에 30-40장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주일간 인터뷰를 거치고 선교 현지를 방문해 1주일간 현지 선교사와 함께 생활한 뒤 선교사가 초청해야 파송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는 초지일관한다"면서 "이에 비해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 선발 시스템이 부실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선교사 파송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희 기자)

2010년 전반부 목사 안수를 위한 공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은데 사정상 신학대학을 중단했습니까?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이 협력하여 전세계 어디서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하셔서 주의 종으로 사역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 자격: 경제사정으로 신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중퇴한 자 또는 본 교단으로 이적을 원하시는 분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분은 전화나 직접 상담바랍니다.
- ▶ 응모기간: 2010년 4월 30일까지
- ▶ 교육과목: 구약총론, 신약총론, 교회 행정학, 논문, 장로교 헌법과 예식서, 신앙 간증문
- ▶ 목사 안수 예정일: 2010년 5월 22일(토) 오후3시
- ▶ 특 전: 여자 목사 안수 및 기도원 원장 자격증 및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정식 미국 교단 Certification)

문의전화 |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 (323)734-0227
직통 (213)725-3007

◆◆◆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실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합니다)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홍 목사

목회자 위해 성도들이 성지순례 선물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갈등으로 뒤숭숭한 시카고 교계에 간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회갑을 맞이한 담임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성지순례를 보내 준 일이다. 그 주인공은 은혜침례교회 성도들과 최정호 담임목사다.

목사를 지지하는 특정 누군가가 거금을 내서 한 것도 아니었다. 25년 전, 은혜침례교회를 개척해 자체 성전을 보유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외길 이민목회를 해 온 최 목사를 위해 성도들이 최 목사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았다. 최 목사가 나중에 알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등지를 13일에 걸쳐 순례하고 왔다. 그는 이번 순례 일정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곳으로 "광야"를 꼽았다. 그는 "미국에 살면서 늘 좋은 것만 보다가 몇시간을 달려도 돌만 있는 광야, 산까지도 돌로 된 그

파를 위해 기도했던 느보산을 보면서 목회자의 순종의 도를 생각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사모와 함께 성지 순례 전문 여행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순례를 다녀 왔는데 특별히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구약과 관련된 성지 중심으로 순례를 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여행과는 거리가 먼 '거친 현장의 경험'을 통해 적지 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순례 기간 중에도 최 목사는 성도들 가정에 일일이 안부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최정호 목사, "광야에서 경외해야 할 하나님 묵상"

성 훈련을 위해 자비량으로 혹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성지순례를 다녀 오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경우는 목회자가 교회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교회의 헌금으로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특정 누군가가 거금을 내서 한 것도 아니었다. 25년 전, 은혜침례교회를 개척해 자체 성전을 보유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외길 이민목회를 해 온 최 목사를 위해 성도들이 최 목사 몰래 조금씩 돈을 모았다. 최 목사가 나중에 알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최 목사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등지를 13일에 걸쳐 순례하고 왔다. 그는 이번 순례 일정 가운데 가장 은혜를 받은 곳으로 "광야"를 꼽았다. 그는 "미국에 살면서 늘 좋은 것만 보다가 몇시간을 달려도 돌만 있는 광야, 산까지도 돌로 된 그

김동호 목사, 엑소더스 말씀집회



조지아 상원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게리 관 씨가 SB 67 법안 반대시사를 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페드로 마린 민주당 하원의원, 헬렌 김 변호사, 노먼 추 중구커뮤니티 회장

엑소더스교회 말씀 집회에 선 김동호 목사(한국 높은뜻의교회)는 삶과 어우러진 간증을 위주로 복음에 관해 설명했다. 4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린 이 집회에서 김 목사는 "죄의 삶",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십자가와 구원", "사랑과 책임", "천국의 사고방식", "예수 믿는 재미" 등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둘째날인 9일 저녁 7시 30분 시작된 집회에서 김 목사는 "나는 개를 너무나 좋아해서 사람들이 나를 '개 아빠'라 부를 정도다. 나 역시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날 '개 자식'이라 부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이다. 개의 아버지는 몰라도 개의 자식이 되고 싶진 않다. 그건 내가 개란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해 좌중에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김 목사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 오신 그 사건은 우리가 개가 된 사건보다 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 말한 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매맞고 치욕을 당하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삶에서 나오는 예화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며 이날 집회에 참석한 3백여명은 아멘으로 대답했다. 엑소더스교회는 2003년, 2008년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김동호 목사를 초청한 것이다. 이철원 담임목사

는 김 목사에 관해 "성공적인 목회보다는 바른 목회를 위해 애쓰는 모델"이라며 "신앙이 담긴 간증과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엑소더스교회는 내년 집회에서는 시카고 출신인 김의식 목사(화곡동교회)를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준형 기자)

간증과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 전해

장애우 주일 맞아 밀알 사랑의 콘서트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 등 찬양

시카고 밀알선교단이 장애우 주일을 맞아 18일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교회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열었다. 엑소더스교회 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소리엘의 지명현 전도사, 구세군 브라스밴드, 밀알가족이 콘서트의 순서를 맡았다.

장애우 주일을 기념할 뿐 아니라 시카고밀알선교단이 추진 중인 밀알복지관 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 콘서트에는 2백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헌금으로 뜻을 모았으며 김인자 권사, 남성우 목사, 전

성철 목사 등 밀알에서 활동 중인 이사들이 기도 순서를 맡았다. 올해로 사역 20주년을 맞는 CCM 듀엣 소리엘은 그동안 한국 CCM계의 대표 주자였다. 현재 장혁재 씨는 소리엘 미니스트리의 대표로 한국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아름다움 속에서 한국적 예수 찾기

아름다움 속에서 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타종교의 예술품, 혹은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난 미적 요소를 통해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술신학이란 이름으로 자리잡은 이 분야에 있어, 스승 유동식 박사의 뒤를 잇는 손호현 박사가 한국기독교연구회(CSKC, The Center for the Study of Korean Christianity) 월례포럼에서 "한국인 예수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별레 이야기, 강화도의 성교회 성당 등을 통해 기독교와 한국의 예술 간의 대화를 시도한다. 김상사의 관음보살상은 최근 세상을 뜬 법정스님의 요청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최종태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2000년 조각한 작품이다. 이 관음보살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져 종교간 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이청준의 소설 '별레 이야기'는 영화 '밀양'으로

오는 22일 CSKC 월례포럼에서 손호현 박사 강연

손 박사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M.T.S., 밴더빌트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까?: 화이트헤드의 신정론 이야기>, <아름다움과 악 1권-4권> 등을 저술, <기독교 구성신학>, <신학적 미학> 등을 번역했으며 연세대 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손 박사는 아름다움과 구원이란 주제를 연결시켜 한국인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려지는 예수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 박사는 불교사찰 김상사의 관음보살상과 영화 '밀양', 이청준의 소설 '각색된 작품으로 선과 구원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화도의 성교회 성당은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한국 최초의 성교회 건물로 성공회가 한국 선교를 시작하며 한국문화와 얼마나 깊은 대화를 추구했는가를 짐작케 해 준다. 손 박사는 이런 사례들에서 한국인이 그리는 예수는 어떤 모습인지 탐구해 가며 이런 탐구를 통해 예술신학 혹은 신학적 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포럼은 4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시카고신학교(5757 S. University Ave. Chicago, IL60637) 1층에서 열린다. (김준형 기자)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 초청 밀알 사랑의 콘서트에 2백명의 성도가 참석했다.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OPEN 7 DAYS A WEEK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후원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함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정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3550 W. 6th St, LA, CA 90020
 T. (213) 448-999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중동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대 오후 5: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종교대.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3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 영아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F. (310) 719-2229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c.org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넌튼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스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주-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대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셀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0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스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종교대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충순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대부 오전 11:00
 금요종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중앙아시아선교회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 (626) 533-5300 / F. (626) 912-7453

축복교회
 담임: 김민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아)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코틀랜드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한인어린이회
 회장: 테레사 엄 목사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주 연방정부 IRS
 T. (213) 380-1112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침례후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Coffee Break Small Groups
 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8208 Pa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 (714) 995-4461 / F. (714) 974-3017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의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정인수 칼럼



정인수 목사
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초심을 상실하게 된다. 집사 때는 그렇게 행복하게 성실히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장로가 된 후부터 그 마음에 변화가 오고, 자주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된다. 차라리 그 분이 집사로 계속 남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보게 된다.

주는가? 하는 그런 행정과 관련된 일에 더욱 더 마음이 쏠린다. 일 중심의 목회가 되면서 마음의 갈증이 지난날보다 자주 발생한다. 내 몸에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형성되기 시작된다. 그때부터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보다도 관려주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장로가 되십시오

예수를 믿은 후 찾아오는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기쁨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행복은 실종되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는다. 적지 않은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고 얼굴이 어두워지며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온다. 담임 목회 초기 때에는 그렇게 행복해 하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시간부터 목회자로서의 그

왜 그런 변화가 찾아올까? 무엇보다도 그 리더십의 다이내믹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집사 때에는 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나 장로가 되면 그 리더십이 많은 부분이 행정의 리더십, 치리의 리더십으로 바뀐다. 영혼에 돌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서 행정의 리더십으로 들어가면 사역의 관심이 바뀌게 된다. 그로 인한 마음의 상태도 아울러 변모한다. 영혼 사역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자신을 대해

의적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교회를 향한 주인의식이 몸에 배이면서 지난날의 섬김의 마음들이 퇴색되기 시작한다. 목회자도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단지 정치기적을 돌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일에서 행정의 리더십으로 들어가면 사역의 관심이 바뀌게 된다. 그로 인한 마음의 상태도 아울러 변모한다. 영혼 사역에 대한 관심보다도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자신을 대해

장세규 칼럼



장세규 목사
한빛지구촌교회

계 천 원짜리를 내면 바로 100원짜리 동전을 주고 물건을 봉투에 넣어 줍니다.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처리하니까 줄을 서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 글의 마무리에서 글쓴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 계산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처럼 큰 체인의 경우에는 매니저가 말을 경우도 있지만 보통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이거나 미국의 토박이라고 해도 학력이나 경력상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편

미국, 한국, 하나님나라의 생산성

편의점의 계산대를 비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한국의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미국의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지 궁금하고 의문을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편의점을 비교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 한 가지를 빼뜨렸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의 점원입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이 직영하는 편의점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편의점의 직원은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이 직영하는 편의점에서는 많은 경우 가게의 주인이 직

의점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최저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만듭니다. 개인의 뛰어난 기량보다는 사회가 가진 시스템과 질서가 개인의 부족한 것을 메워 주면서 자신이 가진 기량보다 더 큰 것을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를 꼽자면 하나님 나라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무능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 수준의 성취를 이루어 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잠시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편의점을 비교한 글이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의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의 광경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에 가서 900원짜리 물건을 집어서 계산대로 가면 계산대에서 일하는 점원은 이미 100원짜리 동전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손님이 900원짜리 물건과 함

우간다 고아 합창을 보면서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면서 불안한 우간다. 에이즈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폭력 약탈과 강간이 무성한 나라.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한 나라라는 내 이미지를 싹 바꾸어 놓았다. 마치 6.25 사변 후에 영국의 한 신문기자가 한국을 다녀가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한 글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알 수 있듯이 나의 추상적인 우간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었다.

서 의사, 교사, 목사 등 우간다에 필요한 봉사자가 되겠다는 포부였다. 더욱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공연 도중 우간다의 상황과 고아들을 돕자는 모금의 메시지를 전달한 젊은이는 한국의 고아 출신이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입양되어 잘 자라서 지금은 우간다의 고아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도움을 알기에 남들을 돕고 있는 것이다.

악계의 거장인 장수철 박사가 전국에서 노래 잘 하는 고아들을 모아 강현련을 시켜 세계적 인 선명회 합창단을 만들어 미국을 돌았다. 카네기홀을 비롯해 가는 곳마다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그 일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어 놓았다. 동족끼리 싸우다 미국을 끌어들이 자국의 청년들이 그 곳에 가서 죽거나 병신이 되게 한 한국으로만 알던 미국인들이 선명회 합창을 보고는 한국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었다.

합창을 들으면서 60년 전 한국의 6.25 전쟁이 오버랩 되었다. 아름다웠던 3천리 금수강산이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전쟁은 확정되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지난주 토요일 저녁 Westminster Presbyterian Church(Evergreen 한국교회)에서 우간다의 고아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난 후다. 많은 단원들이 오려고 했으나 비자를 못 받아 10명만 오게 되었고 지도자 몇 명이 같이 왔다. 고아가 된 이유는 주로 내전과 에이즈 병이 주요인이었다. 고아들이지만 모두가 밝고 명랑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죽이고 팔 다리를 잃었고 공장은 다 부서지고 거리는 폐허되고 상이군인들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구걸을 하고 고아들은 강릉을 들고 이 집 저 집 문 밖에서 "밤 좀 주세요"하고 애원을 했다.

1시간 이상의 연주는 다양했다. 전통적인 의상은 생각보다 훌륭했고 악기는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었다. 격렬하게 온 몸을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며 추는 춤은 생존의 몸부림이었다고 할까. 광활한 땅에 오랜 식민지 생활, 가난과 무지 그리고 에이즈로 수없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부패된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사리사욕 그리고 종교적인 무능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를 기대하기 보다는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미래를 개척하는 일종의 몸부림이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깊이 패인 상처들을 서로 싸매주며 위로하고 손을 잡고 내일의 우간다를 건설하자는 메시지가 있었다.

백만 명이 넘는 월남한 피난민들이 산 밑에 가마니를 치고 깔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해 지는 줄 모르고 당파 싸움을 하고 사기꾼들은 혼란을 기회로 남의 등 치기에 여념이 없던 그 때 어디를 보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기에 희망의 햇살을 높이든 몇 사람이 있었다.

피어스 박사의 후원으로 음

미국을 기차에 부를 때 그들은 흥분했고 더욱 미국 국가를 부를 때에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폐허에서 희망의 불씨를 노래로 성화시킨 선명회 합창단, 5.16 후에는 우리도 '잘 살아 보세'라는 노래와 더불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 제철소를 세우고 새마을 운동을 하며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을 닦은 것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 새로운 생존의 햇살을 높이 들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간다 고아들의 합창단은 우리의 선명회 합창단과 너무나 흡사했다. 마치 어느 그림에 소경의 손에 있는 비파의 줄은 다 끊어졌으나 한 줄이 남아 있는데 그 줄은 희망의 줄이고 그 줄로 희망의 노래를 부를 때 그곳은 다시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기독교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교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 순례

이스라엘 6박 7일

\$2800 \$2150

방문지: 텔아비브, 예루살렘, 마사다, 쿨란, 갈릴리, 가버나움, 베들레헴, 가이사라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3300 \$2599

방문지: 카이로, 시내산, 타바, 에일랏트, 페트라, 암만, 느보산, 예루살렘, 사해, 쿨란, 텔아비브, 음바, 갈릴리, 가버나움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시, 실로암 입장료
-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홍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요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el. 213-388-4000

http://www.usajutour.com, aju@usajutour.com, ajutour@hotmail.com(LA본사)
Fax. 213-387-1006 3053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아마 칼럼을 읽는 분들 중에 는 이 노래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34년 전에 들었던 노래이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아무튼 그 간단한 노래가 왜 그렇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게 오래 내 마음에 남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노래를 불렀던 분의 인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진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손을 내미는 것 같은 표정과 태도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도 마치 그 시간에 진짜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잡고 싶었습니다.

함께 따라서 불렀던 노래도 아니고, 악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강렬한 인상과 감동이 그리고 쉬운 곡조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 에 악보를 찾아서 보니까 이 노래가 막 5장에 나오는 혈루병으로 12년을 고생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는 내용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것을 알았습니다.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

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와 약간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제일 짧는데, 마태는 여인의 병이 나는 시점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로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로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마 9:22, 우리말성경) 개역개정 성경은 “이르시되.....그 즉시”로, 표준새번역은 “말씀하셨다. 바로 그 때에”로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는 것이 예수님께 서 말씀하시고 나서 거의 동시에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아마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병이 나왔겠지만 병을 치료한 분은 주님이심을 마태는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계사 칼럼



임 학 수
공인회계사

tion을 통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부분은 빌려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고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부채탕감 구제금융법 이전에는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1099-C (Can-

택을 구입하기 위한 조건 뿐 아니라 해당주택의 재건축이나 신규 건축, 보수공사 그리고 재용자에 관련된 모기지 도 해당되며, 채무는 제일주택을 담보조건으로 발급된 채무여야 한다. 시행기간도 한시적으로 2012년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이후로는 아무런 구제혜택이 없이 수입으로 간주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구제금융법으로 인한 모기지과 부채 원금 탕감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파동으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경기침체의 진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주택의 소유주가 현재의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하고 은행의 처분으로 인하여 차압상태에 들어간 주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연방정부에서는 일반 납세자의 부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도 말에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를 전격 발표 시행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원금에 관한 이자부분은 개인 세금보고 시 Schedule A: Itemized Deduc-

cellation of Debt)를 채무자에게 발급하여 수입으로 간주 보고하였다.

일단 시행효력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2백만 불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며,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제일 주거 주택(Qualified Principal Residence)에 관한 모기지여야 하며, 둘째, 파산신청(Bankruptcy)으로 인하여 탕감된 부채원금에 관하여도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지불불능(Insolvency)의 판정을 받아서 부채 총액이 해당 채무자 소유자산의 시장가격 총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탕감 부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소득신고로부터 면제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일반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제일 주거주택에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제일주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소유주택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재산의 시장가격이 현재의 채무(모기지) 총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발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지급불능의 상태가 되면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House Equity) 하락한 시점에서 Foreclosure를 통하여 주택이 팔려도 남아있는 모기지 원금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은행이나 대출금융권)는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주면서 양식 Form 1099-C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탕감된 채무내용을 납세자는 양식 Form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통하여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한방 칼럼



이 명 종 교수
LA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참고 지내겠지만, 이따금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어깨에 통증이 몰려와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특히 밤에 잠을 청하려면 육신육신 수시는 통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잦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검사를 해 보니 팔이 뒤쪽의 등 뒤로 올라가지도 않고, ‘견우’라고 하는 어깨부위 경혈 자리 앞부분에 압통이 뚜렷한 점 등으로 보아 오십견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어깨가 걸리면서 아프면 그냥 쉽게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깨 결림과 오십견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고 진행과정이나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사용시간이 늘어나고 또는 스트레스나 장시간 운

전 등으로 어깨 결림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로 어깨 자체보다는 목덜미와 그 바깥쪽의 견정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통증을 나타내지요. 반면에 오십견은 어깨관절 자체가 통증부위이고 어깨관절의 운동제한 및 야간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픈 팔을 어떤 방향으로 올리거나 돌려도 어깨 전체가 아프고 누가 만지기만 해도 심하게 아프지요. 또 어깨가 굳어져서 환자 스스로나 의사가 팔을 올리려 해도 올라가지 않고 통증만 전체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오십견이 아닌 어깨통증 질환들

은 어느 특정한 방향에서만 운동제한과 통증이 나타나며 통증의 강도도 오십견에 비해 약한 편입니다

오십견이란 용어는 정확한 질병명이나 진단명은 아니고 5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어깨병이란 뜻으로 일본에

확한 병명은 ‘유착성 견관절염’이지요.

한의학에서는 오십견의 원인을 어깨 부위 관절에 어혈(瘀血)이 뭉쳐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어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은 침과 탭약을 같이 사용하는데, 침으로 기

계를 돌려주는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주면 오십견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십견은 그냥 놔두어도 저절로 낫는다고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사실이 질환은 죽고 사는 병은 아니므로 통증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견디면 증상의 80%는 해소되고 특히 통증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깨관절에 석회화가 생겨서 운동제한이 영구적 후유증을 남게 되고, 무엇보다도 매우 긴 시간 동안 생활불편이 심하므로 병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래로 막게 될 것을 미리 손쉽게 호미로 막는 지혜 일 것입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서 유래한 용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탓에 지금은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문화권에서는 동결견(frozen shoulder)이란 용어도 많이 써서 어깨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정

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움직임이 활발해진 기가 어혈을 직접 때림으로써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탭약은 뭉쳐있는 어혈을 분해시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쉬우므로 평소 몸이 차갑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신욕이나 어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앙리 2세의 시대적 상황과 개혁자들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

1) 앙리 2세(Henry II 1519-1559)의 불행한 어린 시절

왕의 차남으로 태어난 앙리는 마드리드 조약으로 인해 장남 프랑수아(Francois, Duc de Bretagne)와 함께 1526년에서 1530년까지 스페인에 머물게 된다. 어린 나이의 포로 생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우울증을 갖게 하였다. 또 아버지와 어려운 관계로 웃음이 없는 과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1533년 10월에 앙리와 동갑 나이인 14세의 이탈리아 소녀 까뜨린(Catherine de Medicis 1519- 1589)이 정략 결혼하여 프랑스 왕실을 온다. 하지만 프랑스 왕실이 기대했던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막대한 지참금은 까뜨린의 삼촌인 교황 클레멘트 7세의 갑작스러운 사망(1534)으로 교황청은 지참금 지불을 거절하게 되므로 까뜨린은 곤경에 빠지게 된다. 또한 든든한 정치적 힘이 되어줄 삼촌의 부재로 까뜨린은 왕실에서 무시를 당하였고, 또 남편의 외면으로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함으로 왕실에서 이혼 이야기

가 나올 정도로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1544년에 풍뎉블루 성에서 프랑수와 2세를 출산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포로 생활을 통한 모성애의 결핍이었던 앙리는 20세 연상 디안느(Diane de Poitiers)를 사랑하게 된다. 디안느는 앙리의 할머니 루이즈 시종으로 궁정에 들어왔다가 모후 끌루드의 시종으로 앙리 2세를 키웠다. 1536년에 형 프랑수가 급사(急死)하므로 앙리는 왕의 후계자가 되어 프랑수와 1세가 죽는 1547년에 28살의 나이로 왕이 된다.

2) 개혁자를 핍박하는 앙리 2세
앙리가 왕이 되자 애첩 디안느는 왕비처럼 행사하여 성직자를 비롯한 모든 관직 임명에 참여하였고, 본인이 가톨릭에 우호적이었기에 기즈 톨릭에 우호적이었기에 기즈 톨릭에 주요 관직에 등용시킨다. 이는 앞으로 개혁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할지 예상케 한다.

앙리는 1547년 10월에 이단 엄벌을 위한 파리 의회에 '불타는 법정'(chambre Ardente)이라는 종교 재판소를 개설하여 3년 동안 개신교

500명 이상을 체포하고 많은 개혁자들을 화형시키는 끔찍한 탄압을 하였다.

1549년 11월 19일에는 종교 재판소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였다. 같은 해, 당시 갈뱅의 책들을 주네브에서 가지고 와 판매하던 행상인 막세 모호(Marce Moreau)가 트와(Troyes)에서 체포되어 산 채로 화형을 당하면서 다 음과 같은 찬송을 불렀는데, 이 곡은 무명의 시에 1540년에 Henri Bordier가 작곡한 것이다.

"나의 처지를 가만히 돌아볼 때 한 가지 사실이 나를 위로하네 / 비록 내 몸은 죽일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 / 잔혹한 권력을 가졌을지도, 그들의 손은 결코 강하지 않구나 / 세상 모든 것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 내 몸과 영을 함께 죽일 수 없구나. /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다정한 친구들이여... /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 약한 우리 몸은 죽더라도 /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저 원수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 하세요 / 우리의 영과 육을 함

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친구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찬송하며 화형의 자리에서 죽어갔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자세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이 사건 이후에 1551년 6월 21일 앙리는 샤토브리앙 칙령(L'Edit de Chateaubriand)을 통하여 순교자들이 화형 당할 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혀를 자르는 내용과 종교재판은 신속히 처리하여, 탄원이나 관용을 배제하며 성경과 관련된 책이나 주네브(제네바)에서 출판된 책들을 금지로 정하였다.

1552년에 앙리는 발도와 학살(1545년)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과 샹보르 조약((traite de Chambord)을 맺고서 이들에게 병력과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 대가로 메츠(Metz), 툴(Toul), 베르덩(Verdun)의 주교 관할지역을 프랑스로 넘겨 받는다. 1552년 10월에서 1553년 1월까지 메츠는 카를 5세 군대에 의해 함락되지만, 프랑수와



어린 시절의 앙리 2세

드기즈는 제국의 군대가 장티푸스로 죽어 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탈환하므로 그의 용맹을 떨치게 된다.

이 시기에 갈뱅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서신으로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였고, 책과 설교문을 인쇄하여 격려하였다.

1549년까지 주네브에는 한 명의 인쇄업자를 통하여 158권의 책을 출판하여 대부분 프랑스로 보냈다.

그러나 샤토브리앙 조약으로 이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21명의 인쇄업자와 9명의 서적상이 주네브(제네바)로 피신한다. 1550년-1559년까지 22명의 인쇄업자, 72명의 서적상들이 도피하였으며, 허가된 인쇄업자들을 통하여 불어권 대부분의 책들은 주네브에서 출판하게 된다.

1555년부터 갈뱅은 책 출간 뿐만 아니라, 2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을 프랑스로 파

송하여 교회를 세우며 목양하게 한다. 1555년에 1명, 1556년에 3명, 1557년에 11명, 1558년에 22명 1559년에 32명, 1560년에 12명, 1561년에 146명, 1562년에 12명을 파송하는데 그들 모두가 목사였던 것은 아니었다. 29명의 목사, 10명의 신학생, 각 2명의 장로와 집사, 6명의 과거 수도사, 1명의 사제 출신, 그 외에 교수와 교장, 법률가, 예술인 등이었다.

1555년부터 1572년까지 많은 훈련된 사역자들을 프랑스 교회로 보내었고, 그 결과 1572년 통계에 의하면 2,150개의 개혁교회가 생겨났고, 까뜨린이 교황에게 "로마 교회에서 이탈한 개혁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 이제 창이나 칼과 법률로서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알리고 있다.

한편 앙리 2세는 1557년 7월에 콩피엔느 칙령(L'Edit de Compiègne)을 통하여 개혁자들에 대한 관대한 재판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단 정죄 받은 자의 재심청구권을 허락하지 않는 칙령이었다.

가장 혹독하게 개혁자를 처벌하였던 앙리 2세는 수많은 처벌 칙령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에 대한 근절은 실패하였고, 1557년부터는 귀족 가운데서도 개혁주의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나바르 왕국의 앙투완(Antoine de Bourbon)과 그의 형제 루이(Louis I de Bourbon, Prince de Conde)와 안느 몽모렌시(Anne de Montmorency)의 조카인 프랑수와 폴리니(Francois de Coligny d'Andelot)와 가스파르 폴리니 장군과 그의 형 추기경 가스파르 드 폴리니(Gaspard de Coligny) 등이 참여하였 다.



개혁자들의 화형 장면

WWW.UKOPIA.COM

미국이 보인다!



- 유코피아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는 메인페이지
- 재밌는 뉴스, 정보 가득한 미국가이드, 튀는 칼럼
- 손쉽게 찾아보는 미 전역 한인업소 정보
- 알차고 독특한 미국 여행 정보
- 365일 계속되는 경품이벤트
- 미국 대표도시들의 길라잡이 시티가이드
- 할리웃 스타들의 세계를 소개하는 유코N사이드
- 미국생활/관광의 할인 쿠폰이 "팡팡"

UKopia

온라인 미국정보.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 생등심	프라이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족발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가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혜밀리 종합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들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기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혜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자재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도착률 99% 이상 보장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www.HyundaiMoving.com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213) 388 - 4989
소액도 가능합니다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Roof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념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구,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견적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6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에어컨 1위

에어컨 성능과 수명을 선다에 앞섰습니다. LCF 86310

323.525.0011 / 213.200.5388 / amazingaircon.com

국제기도의집, 한국인 대상 집회 최초 개최

“대추수는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을 반드시 요구한다. 캔자스 시에서 마이크 비클이 하고 있는 중보기도 사역은 대 위임 명령의 완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다.”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총재(Youth With A Mission)

7일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지피는 캔자스시 국제

영진, 헬렌 리 등이 말씀을 전한다.

설교 시간 외에도 24/7 주야 기도실에서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개인기도 사역 시간, 임파테이션(Impartation) 시간 등이 마련될 것이다. 목회자, 선교사, 일반 사역자, 청소년 사역자, 평신도 등 현재 교회의 리더이거나 앞으로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

로 내다왔다. 작년 10주년을 맞은 국제기도의집에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이 방문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왔다. 말씀과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많은 간증들이 있다. 특별히 국제기도의 집이 작년 11월 1일부터 시작

손인식 목사, 세상 변화시키려면 해석,차원,능력 필요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 © 김브라이언 기자

고 현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차원’으로 사는 것

손 목사는 새 장 속에 갇혀 있던 비둘기가 새장을 열어 주면 하늘을 한번 날다가 다시 새 장 속으로 돌아오는 예를 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세상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차원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을 위한 Passion For Jesus

기도의집(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아이합)이 5월 최초로 한국인 대상 집회를 개최한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주제로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동시통역이 아닌 강단에서의 직접 통역이 제공된다. 비영어권을 대상으로 열리는 최초의 집회다.

국제기도의집 대표 마이클 비클 목사가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포함 총 4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그의 본 단체의 대표 표적인 설교자들인 루 잉글, 알렌 후드, 미스티 에드워즈, 박

집회 기간에는 동반하는 자녀들을 위해 만 6-12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도 제공된다. 자녀들은 어른들이 듣는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듣게 될 것이다.

국제기도의집 한국인 사역부에서는 “이번 집회는 아이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이, 개인 및 교회에 대해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며 참석인원은 약 1,500여명으

로 IHOP-U Awakening을 통해 점점 강력한 기름부으심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 금번 행사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제기도의집에서는 놀라운 육적, 정신적, 영적 치료의 간증들이 나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금번 행사는 1단계(5월 10-12일), 2단계(5월 13-16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집회 등록비는 총 95불이다. 어린이 사역 등록비는 30불. <김영빈 기자>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부흥성회 인도

최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란 주제로 열린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담임 장윤기 목사) 부흥성회에서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해석, 차원,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삶에 대한 해석을 갖고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강조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

지만 그 의식대로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한 손 목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임재하고 그의 생각과 의가 우리를 다스릴 때, 환경을 넘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간은 환경적인 조건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있더라도 어둠과 고뇌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해석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손 목사는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돼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가치로 판단되는 능력이 아닌, 선을 만드는 능력, 환경을 넘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용서의 능력, 섬김의 능력, 평화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라며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세워지고 해석과, 차원, 능력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25개 다민족, 미국의 회복과 부흥위해 모인다



지난해 4월 26일 제2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에서 주빌리크리스천센터콰이어가 공연했다

미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북가주 25개 다민족 교회가 참석하는 제3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 4월 25일 오후 7시 북가주 대형교회인 주빌리 크리스천 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북가주지역에 있

기도하게 된다. 이외에도, 공연 중간에 각 민족 소개와 교회 현황 및 선교 현황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상영하게 된다. 다민족콘서트에 참여하는 다민족교회는 전세계 각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타이완 5개 교회 연합 찬양팀, 에디오피아 5개 교회

드(통가, 피지, 괌, 하와이사모아)등 교회가 연합한 찬양팀이 참여한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히, 북가주지역 타이완 5개교회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타이완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은 9월 25, 26일에 타이완민족 대표 교회인 타이완

빛장로교회, 산호세한인침례교회, 오클랜드장로교회, 시온성교침례교회, 티뷰룬아름다운교회, 노바토침례교회, 벨앨선교회, 이스트베이지역교회연합 등 15 여개 북가주 한인교회가 연합한다. 한인커뮤니티 공연 지휘자는 전

제3회 글로벌다민족콘서트 주빌리크리스천센터에서 열려

는 25개 각 민족대표 목회자가 모여 미국과 열방 회복, 부흥을 위한 체인프레이어(Chain Prayer)가 진행되며, 각 민족이 고유상을 입고 교회와 연합해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합심기도시간에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메리칸, 라틴아메리칸, 러시아, 중동아시아 등의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함께

연합 찬양팀, 미국 주류교회로는 월넛크릭 장로교회, 플라젠홀 교회 3개교회가 연합해 백인연합성가단을 이룬다. 이외에도 주빌리교회 산하 대규모 가스펠 콰이어팀, 하와이언 다민족으로 구성된 하와이언 프레이즈팀, 인도네시아-차이니스 프레이즈 밴드, 이란 프레이즈 밴드, 스페니스 밴드팀, 퍼시픽아일랜드

가나안교회에서 열리는 제 6차 다민족선교대회를 앞두고 홍보겸 참석하게 된다. 한인커뮤니티에서도 다민족 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 북가주 한인연합성가대가 구성됐다. 산호세 임마누엘장로교회, 뉴라이프교회, 크로스웨이교회, 월넛크릭 GIN교회, 콘트라코스타장로교회, 은혜의

이스트베이가정합창단 백효정 집사가 내정됐으며, 한국커뮤니티에서는 임마누엘장로교회 G2M워십댄스팀이 별도로 참여한다. 지난해까지 해도 한인교회 지원을 받은 다민족콘서트는 올해부터는 장소 등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미국교회 중심으로 옮겨졌다. <임형진 기자>

가장 쉽게 배우는 컴퓨터!
망설이면 늦습니다.

컴맹탈출의 네비게이션만 믿으세요!

시판가격 \$220 → 할인가격 \$150

※ CD 한 프로그램만 이수하셔도 6개월분의 학원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IT 내공' 을 체크해 보세요

IT내공 측정 20개 문항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고 답한 문항이 0~2개이면 하수, 3~12개면 중수, 13~16개이면 고수, 17개이상이면 달인으로 분류됩니다.

1. PC를 통한 정보검색과 간단한 문서작업이 가능하다.
2. 이메일을 받고 쓸 수 있다.
3. 온라인 쇼핑몰이나 주식거래를 자주 활용한다.
4. 블로그, 사이트, 카페 등에 사진이나 글을 올리곤 한다.
5.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할 수 있다.
6. 이메일을 통해 RSS피드를 받아 보고 있다.
7.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이용중이다.
8. 휴대전화로 웹검색을 할 수 있다.
9. 휴대기기(스마트폰 등)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10.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전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11.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를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12.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본 적이 있다.
13. 휴대전화로 지도, 목적지까지의 경로, 대중교통 정보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14. 스카이프, 구글 보이스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5. 와이파이가, 3G, 와이브로의 차이를 구분 할 수 있다.
16. 웹스케줄러나 동기화 프로그램으로 일정을 관리한다.
17. 스마트폰을 해킹하거나 OS교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다.
18. 구글독스나 웨이브 등의 웹협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
19. 2-3종 이상의 스마트폰과 e북 등 휴대기기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20. 휴대전화에 추가태야 할 기능과 서비스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구입처 1-800-310-1089 자세한 정보는 www.mystant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4월 26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글로벌 플랜

TAX 포함 ~~\$24.99~~

\$9.99 /월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30일 환불보장

놀라운 가격, 놀라운 혜택, 더 놀라운 절약!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지금 가입하시면,

-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개통비 (\$29.99) 면제**

- 집전화 및 휴대전화로 한국 포함 29개국에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화!
- 미국전화번호 및 한국전화번호 무료제공!
- 기존 전화번호, 전화기 이용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제공!
- 폰어댑터 무료 대여!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아 · 이 · 토 · 크 · 비 · 비

iTalkBB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은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이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3개월을 포함해 총 18개월 간의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해제하는 경우 \$20.00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발신 한시 통역서비스를 한시내에 유료입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로컬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조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한인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푸엔테힐스 현대의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한인목회자 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 4월 한달 더 연장 세일 -

1. 목회자 특별 리스 및 원가세일 단행

목회자이시면서 쇼셜이 없으신 분, 크레딧이 없으신 분과 나쁘신 분 모두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또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특별가격에 도와드립니다. 단, 목회자 증명서 필요

2. 북미 최대 단일현대 딜러

총 부지 6.8에이커로 800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전시 판매할수 있으며, 편안하고 품위있는
차량구입에서 정비, 바디샵과 사후 관리까지 최첨단의 시설로 원스탑 딜러로 고객만족을 위해 만전을 기함

3. 고객을 우선시하는 딜러

우리는 고객을 우선시하기에 아이들 놀이방 및 간식 제공, 서비스 대기시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차량 구입자 전원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세차 및 일정의 서비스 고객들께
평생 무료 오일체인지 등과 함께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4월 한달 스페셜 세일'

서두르세요!
한인 목회자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10 NEW ELANTRA GLS

LEASE \$159 + Tax
24 month/12K mile T.D.O \$1,999
(O.A.C) MODEL #44414 IN STOCK ONLY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2010 NEW SONATA GLS

SALE 0% + \$750 CASH BACK
(O.A.C) MODEL #26404 IN STOCK ONLY

※ 상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바디샵 딜러 자체내 오픈-

검증된 기술자 채용, 최첨단 도장 처리시설 완비, 무료 견인및 무료 견적, 신속하고 깔끔한 뒷처리,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 100% 소화

오픈 기념 행사 수리하시는 동안 무료 렌트해 드림. 무료 휠 얼라이먼트 해 드림.
4월 한달 방문하시거나 서비스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찰리 정 / Fleet Manager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9:00pm
▶ 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 월-토 7:30am~6:00pm
▶ 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스티브 강 앤디 김 스티브 박 지니 안

한인 푸엔테힐스 현대 WWW.PHHYUNDAI.COM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lose your income, we'll let you return it.